국내 전시컨벤션 시설의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 국내 대도시의 전시컨벤션 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pace Utilization by Programs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Facilities in Korea

- Focusing on convention and exhibition facilities in large cities of Korea -

Author 박태성 Park, Tae-Sung / 정회원,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공학박사

Abstract The study performed analysis focusing on specialized convention and exhibition facilities am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facilities in Korea. The procedures an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y theoretical consideration, meaning and contents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programs done in convention and exhibition facilities were considered and after that,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s which were the main of space utilization was derived. Second, considering scale and location, 6 facilities were re-selected for in-depth research from 12 facilities investigated preliminarily. Selected facilities were categorized by scale and through the analysis of programs done in this facilities for the last 1 year, overview and characteristics of utilization for exhibition space, conference space, and multi-purpose space, etc were analyzed. Third,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program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pace utilization by convention and exhibition program were analyzed.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considering the whole, the space utilization of programs was done as conference space rather than exhibition space and the ratio of use as conference space to use as exhibition space was 1.8 in the large facilities, 6.7 and 7.6 in the middle facilities and the small facilities, respectively. In the middle and small facilities, the ratio of use of one room as conference space was very high. In the large facilities, there was no big difference with the ratio 50:50 of the programs involving exhibition to other programs, but in the middle and small facilities, the ratio of the former to the latter was observed over 2.4 and 3.6. This fact indicated that the function of use as promotion and communication space for companies and industrial entities which were the essential purposes became low.

Keywords 전시컨벤션, 프로그램, 공간활용, 공간분할
Exhibition & Convention, Program, Space Usage, Spatial Subdivis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은 국내·외적인 산업 및 문화 교류의 발전과 국가적 정책 사업에 힘입어 최근 10여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국내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은 12곳이며 이 중 약 10곳이 2000년 이후에 개관하였으며, 현재는 광역시급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핵도시에서도 건설을 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전국적인 시설의 양적 성장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시설의 운영 주체들은 시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관람객의 수가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상기의 시설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시설 증축을 마쳤거나 시설규모 확충을 추

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전시컨벤션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문객 유입과 함께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창출이 유망한 시설로 전시컨벤션 시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건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준공 이후 전시 및 컨벤션 공간 활용에 대한 충분한 재분석과 심도 깊은 재검토가 시설의 팽창과 함께 진행되어야 했지만, 조사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설의 운영성과 및 규모적인 증대에만 관심이 치중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관련 연구 또한 미흡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활용을 분석하고자 접근한 연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분석과 함께 이를

통한 시설의 공간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 공간 활용 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전시컨벤션 시설의 기획과 설계단계에 필요한 현황 데이터 제공 및 기본적인 시설 계획의 방향 제시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의 대상은 국내 전시컨벤션 시설 중에서 앞서 말한 정부에 등록된 전문시설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첫 번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전시컨벤션 시설에서 행하여지는 전시와 회의에 대한 유형과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시설 활용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의 정의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심층 조사를 위한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체 시설 중에서 전시공간, 회의공간, 기타공간 등에 대한 이용 현황자료가 확보 가능하면서 시설의 입지와 규모를 고려한 6곳을 선정하여 각 시설들의 기본적인 공간 현황 및 기능적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사례의 주요 공간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공간 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개별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케이스스터디를 통하여 전시와 회의 프로그램별 공간 활용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활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함께 시설계획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전시 및 회의 형태와 특성

전시컨벤션 시설의 주용도는 전시 및 회의이며, 이 중 전시는 일정한 공간에서 참관객과 참가업체가 유·무형의 상품을 매개로 상호 교류를 하는 산업전시회를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산업전시회의 형태는 전문, 종합, 복합전시회와 박람회¹⁾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전문전시회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이며, 그 외 대규모인 종합, 복합전시회, 박람회 등은 최장 6개월을 내외로 전시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전시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세미나, 강연회, 상담회 등이 함께 개최되는 상품전시와 컨벤션의 복합적 형태의 전시회(Complex Exhibition)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

- 1) 전문 전시회를 박람회로 지칭하여 흔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박람회는 인류의 계몽, 교육, 번영 등 종합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개최기간도 수개월간 지속되며 수일간 개최되는 산업 전시회와 성격과 규모가 다르다. 하지만 위와는 상관없이 현재는 박람회와 산업전시회가 점차 결합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 개최되는 일반전문전시회에서도 박람회란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 신재기, 전시산업론, 한울출판사, 서울, 2004, pp.86-87
- 2) 현재 전시와 컨벤션 시설이 대부분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용어를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전시컨벤션 시설로 불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같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전시회는 12세기 전후 유럽의 시장형태의 상품전시에서 출발하여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상품

회의는 형태에 따라 컨벤션을 비롯하여 소규모 컨벤션을 일컫는 컨퍼런스(Conference), 콩그레스(Congress) 등으로 나뉘며 기타 포럼(Forum), 심포지엄(Symposium), 세미나(Seminar)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나, 앞서 전시회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각종 회의 또한 단독회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시 등의 이벤트를 수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회의의 주체도 기업, 협회, 공공,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시와 회의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개최되고 있으나, 동일 행사 내에서 전시와 회의개최에 대한 비중은 지역마다 ‘주’와 ‘부’가 다르게 편성되고 있다. 미주지역의 경우 컨벤션, 컨퍼런스 등의 회의에 비중을 두고 부수적으로 전시를 개최하는 반면, 유럽지역의 경우는 반대로 전시 행사가 중심이 되고 회의가 부수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2.2. 프로그램의 특성 및 분류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와 회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큰 형식에서 ‘이벤트(Event)’ 또는 ‘행사’의 일부에 포함되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의 특성에 대하여 Wilkinson(1988)는 지정된 시간에 계획된 일회성 행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경모(2002)는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장소에 참여자들이 모이는 비일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宮木宗治(2005)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7개의 유형으로 분류³⁾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이벤트의 목적별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을 재분류할 수 있다.

<표 1> 목적별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의 분류

목적별 유형	이벤트 프로그램 별	주요 개최기관
전시	산업전시, 무역전시, 교역전시 등	공공, 민간
회의	포럼, 컨퍼런스, 콩그레스,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공, 민간
축제	지역축제, 전통축제, 향토전 등	공공
스포츠/레크레이션	오락, 게임, 운동회, e스포츠, 경기대회 등	민간
기업/상업	기업관측, 기업대전, 발표대회, 방송, 홍보, 채용 등	민간
예술/문화	공연, 콘서트, 경연대회, 사인회, 기념회, 작품전 등	민간
정치	정치연설, 후원모임, 선거, 정당대회, 이취임식	공공, 민간

전시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 건본전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전시회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80~90년대에는 각 개별 전문전시회가 함께 모이는 복합전시회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상호 필요에 의하여 전시와 컨벤션 기능이 하나로 결합 발전하면서 시설도 복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게서, pp.15-16) 또한 19세기 초기 미국에서 협회, 단체, 기업들의 집회, 총회, 대회 등에서 출발한 컨벤션(Convention)의 경우 흔히 국제회의(International Meeting)와 혼용하여 불리고 있으나 국제회의 및 국내회의는 지역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컨벤션은 컨퍼런스, 세미나, 심포지엄 등 회의 진행 형식의 하나로써 혼용하여 쓰이고 있지만, 두 용어의 지역적, 내용적 범위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윤세목, 국제회의산업론, 현학사, 서울, 2004, p.15

- 3) Donald Getz(1991)는 목적에 따라 개인 이벤트를 포함하여 8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小坂(1996)는 미디어, 컨테스트 이벤트를 포함하여 9개로 분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벤트 유형은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지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하는 것은 이벤트 유형에 해당되고, 이벤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유형별 이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벤트 프로그램은 다시 개최기간 동안의 일정을 각각의 세부적인 스케줄(일정)로 편성하여 진행되고 있다.⁴⁾

<그림 1> 이벤트 유형과 프로그램의 관계 흐름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벤트를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도구이며 전시컨벤션 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간의 활용과 연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각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공간을 전시공간과 회의공간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이용유형을 분류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공간적 구획은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전시공간과 회의공간으로 나누고 있지만, 행사 주최자는 참가자의 규모, 일정 등 진행 환경에 따라서 공간 구분에 관계없이 효용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공간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2.1에서 설명한 공간이용의 복합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2> 공간에 따른 프로그램의 분류

공간별	개별별	개별 프로그램(목수)
전시공간	전시계	박람회, 페어, 전시회, 페스티벌, 대전, 품평회, 엑스포 기술전 산업전, 기기전, 체험전 등
	비전시계	컬렉션, 면접, 공부회, 쇼, 축제, 이벤트, 체험전, 바자회, 시상식, 기념식, 기업회의, 콘서트, 오디션 등
회의공간	회의계	설명회, 총회, 컨퍼런스, 워크샵, 상담회, 포럼, 보고회, 강연, 세미나 등
	비회의계	홍보회, 기자회견, 사인회, 교육, 단식, 선거, 출범식, 연찬회, 발표회, 합동초회, 쇼, 취임식, 시상식 등

아울러 이러한 전시컨벤션 시설에서 개최되는 이벤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통하여 지역진흥, 기업이미지 개선 및 홍보, 산업교류, 국제협력 등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함이며, 수단으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최는 전시컨벤션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건축적 측면에서 공간 활용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조사대상 개요

3.1. 전시컨벤션 시설의 현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국내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은 12곳이며 이들 시설들의 개관 후 가

동년수는 2012년말을 기준으로 최소 5년에서 최장 13년에 이르고 있다. 개관 이후 평균 가동년수는 1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동 시설이 발달된 유럽 및 미주 등의 외국에 비하면 아직 짧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마다 단기간에 시설 조성을 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벤트 유치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시설에 따라서는 아직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표 3> 국내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 현황(2012년말기준)

전시장명	개관일	가동년수	부지면적	전시면적	전시면적 규모
1. COEX(서울)	2000.5	13년	125,713㎡	37,253㎡	대규모
2. SETEC(서울)	1999.5	14년	31,000㎡	7,948㎡	소규모
3. aT Center(서울)	2002.11	11년	18,810㎡	7,422㎡	소규모
4. KINTEX(경기)	2005.4	8년	237,790㎡	108,049㎡	대규모
5. Songdo Con.(인천)	2008.11	5년	30,690㎡	8,416㎡	중규모
6. BEXCO(부산)	2001.9	12년	114,772㎡	46,380㎡	대규모
7. EXCO(대구)	2001.4	12년	20,863㎡	22,159㎡	대규모
8. DCC(대전)	2008.4	5년	24,181㎡	2,520㎡	소규모
9. KOTREX(대전)	1995.5	18년	29,196㎡	4,200㎡	소규모
10. KDJ Center(광주)	2005.9	8년	53,301㎡	9,072㎡	중규모
11. CECO(창원)	2005.9	8년	40,282㎡	7,827㎡	소규모
12. ICC JEJU(제주)	2003.5	10년	54,876㎡	2,395㎡	소규모

국내 전문시설의 전시면적의 경우, 2000년도 이전까지는 전체 전시면적이 3만㎡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약 10여년에 걸쳐서 약 10배 가량인 약 26만㎡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시설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시설 내부의 프로그램에 따른 전시공간 및 회의공간에 대한 공간이용 분석은 건축 공간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림 2> 년도별 전시면적 누적 추계

3.2. 주제별 행사 개최 경향

국내에서 개최된 유형별 이벤트 프로그램의 세부 개최 경향을 일반 전시컨벤션시설까지 포함하여 보면 매년 20여 가지 이상의 독립적인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고 있다. 개최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경영, 교육, 의학, 과학 기술, 경제·금융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으며 전체 비율에서 과반수 이상인 60~70%대를 차지하고 있다. 참가인원으로 볼 때는 관광·교통, 기업·경영, 교육 행사 순으로 많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⁵⁾ 기업·경영 및 의학분야의 행사는 꾸준한 개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을 주제로 하는 행사의 경우 최근 수년간 사회적인 관심과

4) 이경모, 이벤트학원론, 백산출판사, 서울, 2002, p.32

5) 한국관광공사, MICE 행사통계, 2013

함께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정보통신, 과학 기술 관련 행사는 점점 개최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상반되는 관련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4> 주제별 개최비율의 최근 경향

구분	2009년	비율	2010년	비율	2011년	비율
주제	기업경영	32.19%	기업경영	46.78%	기업경영	40.63%
	과학기술	9.86%	교육	10.11%	교육	15.77%
	의학	8.17%	과학기술	6.21%	의학	8.76%
	정보통신	5.25%	의학	5.98%	과학기술	5.84%
	교육	4.89%	경제금융	5.98%	경제금융	5.53%
계	60.36%		75.06%		76.53%	

3.3. 사례조사 대상의 공간배치 개요

조사대상 6개 시설은 전국 주요도시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시설 A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수요와 입지적 측면에서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의 복합적인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있다. 시설 B는 최근 증축을 통하여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증축은 분동 형태로 이루어져서 구 전시장과 신 전시장은 브릿지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회의장은 이동

<표 5> 조사대상 시설별 전시 및 회의공간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위치	전시공간	면적(㎡)	회의공간 (호)	면적(㎡)	기타	면적(㎡)
A (서울)	4층	-	-	401~403	957	-	-
	3층	홀C1~4	10,348	300~327	2,995	오디 토리움	2,104
		홀D1~2	7,281	홀E1~6	1,551	-	-
	2층	-	-	201~211	1,262	-	-
	1층	홀A1~4	10,368	-	-	다목적홀	1,817
		홀B1~2	8,010				
B (부산)	3층	홀C1~5	9,936	321~326	756	다목적홀	2,082
		-	-	311~317	877	-	-
	2층	-	-	211~218	1,000	오디 토리움	4,766
		-	-	201~208	1,440	-	-
	1층	홀A1~5	26,508	121~126	756	-	-
		홀B1~6	9,936	101~110	1,440	-	-
C (광주)	4층	-	-	-	-	다목적홀 1~3	1,518
	3층	-	-	301~312	1,286	-	-
	2층	-	-	201~214	1,253	-	-
	1층	홀A1~3	9,072	-	-	-	-
D (인천)	3층	-	-	301~304	432	-	-
	2층	-	-	201~202	270	다목적홀 1~3	1,716
	1층	홀A1~2	8,416	102~118	1,602	-	-
	E (대전)	3층	-	-	-	-	오디 토리움
2층		-	-	203~211	666	다목적홀 1~2	2,042
1층		홀A1~4	2,520	101~108	1,160	-	-
F (제주)	5층	-	-	-	-	다목적홀 1~2	4,062
	4층	-	-	400~402	400	-	-
	3층	-	-	300~304	477	-	-
				홀C1~2	643		
				홀B1~2	276		
	2층	-	-	201~203	234	-	-
	1층	홀A1~3	2,395	-	-	-	-
-				-	로비	2,050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다만, 증축 부분은 프로그램 개최 현황자료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소규모 시설인 시설 E와 F는 전시 프로그램 개최가 타 시설과 비교하여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다목적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공간을 복합 용도로 활용하여 전시, 회의,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각 시설의 전시공간은 주로 1층에 주로 배치되고 있으나, 3층 이상의 층에 배치된 경우 기업 및 상품 전시보다는 학술대회, 컨퍼런스, 설명회 등의 회의 관련 프로그램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임대형식에 있어서는 1개의 대규모 단일 전시공간을 최소 2홀에서 최대 5홀까지 분할 가능하게 하여 사용하고 있다. 회의공간은 주로 1~3층 사이에 비교적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1층 28%, 2층 30%, 3층 39% 4층 이상은 3%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전시공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개별 단위별로 나누어서 분할 또는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시 및 회의공간의 분석 기준은 최대 통합 가능한 1개 실 단위를 층별 단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목적공간은 시설마다 그랜드볼룸, 컨벤션홀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특정 용도가 아닌 연회, 회의, 공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홀로 통일하여 분석하였다.

<표 6> 조사대상 시설별 공간배치

* □ 전시공간 ■ 회의공간 ▨ 다목적공간

4.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공간 활용 분석

지역 및 규모별로 선정된 6곳의 사례조사 대상 시설에서 최근 1년간(2012년1월~12월) 진행된 전시 및 회의 관련 프로그램 사례 2,487건에 대하여 프로그램 내용, 기간, 내부 개최 장소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시설별로 분석된 프로그램 수⁶⁾는 다음 <표 7>과 같으며, 지역별 이용률과 함께 주요 공간인 전시공간 및 회의공간, 다목적공간 등의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률에 대한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인구 대비 추정이용객수⁷⁾에 따른 이용률은 C시설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E시설이 13%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이용률도 각각 256%와 21%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C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주변 도시에 전문 전시컨벤션시설이 부재한 반면에 E시설의 경우 시설이 소규모인 규모적 원인과 함께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관계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D시설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인 거리적 관계에 따라 이용률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행사의 규모 및 인지도에 따라 지역에서 오는 이용객들도 있으므로 인근 지역민에게만 이용률을 국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시설별 분석 개최 프로그램 수 및 인구대비 이용률

구분	대규모(A, B)		중규모(C, D)		소규모(E, F)		계
	A	B	C	D	E	F	
전시횟수(건)	209	97	71	32	40	27	476
회의횟수(건)	138	674	627	164	275	133	2,011
15세이상인구(천명)	8,442	2,925	1,218	2,308	1,262	447	16,602
경제활동인구(천명)	5,258	1,693	704	1,480	753	301	10,189
경제활동참가율(%)	62.3	57.9	57.8	64.2	59.7	67.3	61.5(평균)
추정이용객수(천명)	3,408	1,864	1,803	622	158	161	-
인구대비이용률(%)	40	64	148	27	13	36	-
경제활동대비이용률(%)	65	110	256	42	21	53	-

4.1. 공간별 프로그램에 따른 이용 분석

(1) 전시공간의 이용분석

전시가 행하여지는 전시공간은 시설 내부에서 가장 큰 공간이므로,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다. 분할 이용률의 전체 평균은 49.5%로 나타났으나, 분할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A와 E시설을 제외할 경우 이용률은 82.9%로 매우 높아진다. 대규모 시설인 A시설은 타 시설보다 규모가 큰 전시 프로그램 비중이 많은 이유에서 전시홀을 분할하지 않고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소규모 시설인 E, F시설은 전시보다 회의나 이벤트 프로그램 위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B시설의 홀B,

C의 경우 60일이 넘는 키즈파크 등의 자연형층 대상 장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평균 이용일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시설별 전시공간의 이용분석

구분	실명	개최수(회)	총가동일수(일)	평균이용일수(일)	순가동일수(일)	분할사용횟수(회)	분할이용률(%)
A	홀A	66	231	3.5	222	5	7.5
	홀B	59	172	2.9	160	8	13.5
	홀C	59	169	2.9	159	7	11.8
	홀D	45	142	3.2	136	4	8.8
B	홀A	72	371	5.2	191	70	97.2
	홀B	21	331	15.8	181	19	90.5
	홀C	12	480	40	280	10	83.3
C	홀A	71	293	4.1	163	63	88.7
D	홀A	32	144	4.5	101	18	56.2
E	홀A	40	92	2.3	90	2	5.0
F	홀A	27	73	2.7	43	22	81.5

총가동일수에 대하여 분할 이용률을 감안한 순가동률은 대규모 시설(사례A, B)일 경우 평균 52.0%, 중규모 시설(사례C, D) 36.5%, 소규모 시설(사례E, F)인 경우 18.2%로 나타나 전시공간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순가동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소규모로 갈수록 대량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형 프로그램 유치가 대규모 시설 보다 어려움과 동시에 개최수가 적어지면서 소규모 행사에 따른 공간 분할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 총가동일수(점선) 대비 순가동일수(실선) 비율

<그림 4> 순가동률(%)

(2) 회의공간의 이용분석

회의공간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가자수에 따라 공간의 통합, 분할이 전시공간보다 훨씬 민감하게 이루어진다. 6개 시설의 1실당 평균 회의공간 면적은 138㎡이며 평균 이용일수는 대규모 시설 1.6일(1실 평균면적163㎡), 중규모 1.2일(108㎡), 소규모 2.0일(144㎡)로 나타났으며, 휴양지에 위치한 F시설의 경우 참가자들이 회의 참가 목적 외에 휴양 목적을 겸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균적인 이용기간이 타 시설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통합 회의공간을 최대 분할하여 이용할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개실의 수는 적어지므로 순가동률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시 프로그램과 달리 회의 프로그램은 당일로 한정된 경우가 많고 참가 단위가 단락적인 중·소그룹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러한 참가자들의 이용적 특징들이 시설 이용도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시설의 회의공간 순가동률은 A, B

6) 전시 또는 회의 프로그램 중에서 상호 연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시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각 공간별 분석 자료에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맞지 않는 실외 단독프로그램 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7) 한국관광공사, 2011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서울, 2012, p.279

<표 9> 시설별 회의공간의 이용분석

구분	층별 회의실	개최수 (회)	총가동일 수(일)	평균이용 일수(일)	순가동일 수(일)	분할사용 횟수(회)	분할 이용률(%)
A	4층	31	50	1.6	30	25	56.8
	3층B	21	48	2.3	46	2	11.5
	3층A	58	76	1.3	45	42	1.7
	2층	12	27	2.3	23	7	17.1
B	3층B	14	25	1.7	14	12	85.7
	3층A	64	71	1.1	38	59	92.2
	2층B	177	231	1.3	117	175	98.9
	2층A	160	228	1.4	119	153	95.6
	1층B	15	26	1.7	16	11	73.3
	1층A	216	284	1.3	147	209	96.8
C	2층	491	531	1.1	267	488	99.3
D	3층	20	21	1.1	12	17	85.0
	2층	15	19	1.3	13	9	60.0
E	1층	112	146	1.3	83	97	86.6
	2층	141	176	1.2	26	137	97.2
	1층	83	117	1.4	22	79	95.2
F	4층	30	74	2.5	47	22	73.3
	3층C	57	108	1.9	93	16	28.1
	3층B	36	95	2.6	83	9	25.0
	3층A	56	131	2.3	82	42	75.0
	2층	21	56	2.7	41	11	52.3

가 16.3%, C, D가 25.7%, E, F가 19.4%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중규모 시설에서 개최되는 회의 프로그램이 평균소요면적은 작으면서도 순가동률이 높고, 회전률의 기준이 되는 이용일수도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총가동일수(점선) 대비 순가동일(실선) 비율(일)

<그림 6> 순가동률(%)

(3) 기타공간의 이용분석

기타공간에는 전시 및 회의공간을 제외한 다목적공간, 오디토리엄, 로비 등이 있으며 이들 공간들은 보통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본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부수적인 지원 역할로 이용되는 공간이지만, C, E와 같은 일부 시설에서는 활발한 단독 프로그램의 개최를 통하여 전시공간의 개최수보다 많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개최에 따른 평균 이용일수는 대규모 시설에서 3.2일, 중·

<표 10> 시설별 회의공간의 이용분석

구분	실명	개최수 (회)	총가동일 수(일)	평균개최 일수(일)	순가동 일수(일)	분할사용 횟수(회)	분할 이용률(%)
A	다목적홀	29	48	1.7	42	7	24.1
	오디토리움	14	30	2.3	30	-	-
	로비 등	6	52	8.6	-	-	-
B	다목적홀	58	102	1.7	102	-	-
	오디토리움	28	51	1.8	51	-	-
C	다목적홀	134	166	1.2	126	65	48.5
D	다목적홀	35	60	1.7	54	7	20.0
E	다목적홀	66	107	1.6	103	5	7.6
	오디토리움	36	52	1.4	52	-	-
F	다목적홀	30	80	2.7	60	15	50.0
	로비 등	30	33	1.1	-	-	-

소규모 시설에서는 1.5~1.7일로서 대·중규모 시설에서는 회의공간보다 이용일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로비공간은 기업전시의 부대 공간으로 쓰이거나, 일반인이나 학생들의 작품전 같은 소규모 행사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본 행사를 위한 안내, 접수 공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공간의 연계사용 분석

전시홀, 회의홀, 다목적홀, 오디토리엄 등에 대한 각 공간별 상호 연계사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시홀 1실만 사용하는 경우는 대규모 시설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중규모 10.4%, 소규모 7.3%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B와 C의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회의실을 연계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시홀 내부에 회의실 부스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동선을 유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회의공간만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규모에서 평균적으로 약 60% 정도이며, 중규모 시설에서 약 70%로 가장 높았다. 두 종류의 실을 연계 사용하는 경우는 전시홀과 회의홀의 연계 형식이 가장 높았으며 3개실은 전시홀, 회의홀, 다목적홀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에서의 비율은 각각 평균 2.7%, 1.4% 정도로 낮았다. 특히 시설 A에서 전시홀과 회의홀을 연계 사용하는 경우가 9.1%로 제일 높았는데, 이는 타 시설보다 평균 7 배 이상 높은 비율로서 두 종류의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대형 프로그램의 개최 빈도가 타 시설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중·소규모 시설에서는 전시홀보다 다목적홀의 사용이 높았으며 소규모 시설에서는 로비 등의 공간의 활용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시컨벤션 시설은 전시공간보다 회의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공간 대비 회의공간의 이용 비율은 대규모 시설에서 1.8배, 중, 소규모 시설에서 각각 6.7배, 7.6배의 비율로 중·소규모에서는 회의실 중심의 단일 이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전시홀 2 회의홀 3 다목적홀 4 오디토리엄 5 기타 로비 등

<그림 7> 시설별 공간의 연계사용 빈도

(5)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전용기능 분석

전시가 열리는 전시공간은 전시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앞서 <표 2>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기업 및 산업전시를 수반하는 전시계 프로그램과 회의

중심의 설명회, 포럼, 대화, 포럼, 이벤트 등의 회의계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대규모 시설에서는 전시계와 회의계의 비중이 동일 비율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규모 및 소규모 시설에서는 회의계의 비율이 전시계보다 각각 2.4배와 3.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중·소규모 전시장에서는 본래의 이용 목적인 기업과 산업체의 홍보 및 교류의 장에 대한 용도 기능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설별 세부 분석에서는 A시설을 제외하는 경우 전시계 전용 기능은 평균 약 30% 초반 수준으로 낮게 분석되어 전시공간에서는 주용도인 전시기능 보다 부용도로서의 이용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시설규모별 전시 및 회의계 프로그램 비율, 전시계 사진

4.2.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연계와 활용

(1) 프로그램별 공간활용 분석

앞 절 2.2의 <표 1>에서 목적별 유형으로 분류된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공간의 연계활용을 분석하였다. <표 11>참조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전시컨벤션 시설의 여러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전시목적의 산업, 무역, 교역전시의 경우 주된 목적이 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홀, 다목적홀, 기타 로비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복합적인 공간의 활용들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회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포럼, 컨퍼런스, 킥그레스 등의 프로그램들은 킥그레스 형식을 제외하고는 주로 회의실을 위주로 다목적홀과 오디오리움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2.1절에서 언급한 복합전시회(Complex Exhibition)의 적극적인 형태의 복합화가 회의목적의 프로그램 보다 전시목적의 프로그램들이 평균적으로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및 전통적인 축제관련 프로그램들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관련 프로그램들은 전시홀과 마당, 로비 등의 외부공간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개최빈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도 높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기업/상업목적과 관련된 페어, 설명회, 홍보, 강연회 등은 <표 4>에 조사된 것과 같이 기업, 경영에 대한 주제가 전체 개최비용에서 가장 높은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 종류가 많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공간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문화목적의 공연, 기념회, 작품전 프로그램들의 공간 활용은 특정 공간을 주로 이용하기보다는 각

각의 프로그램의 소요공간 및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다른 활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선거, 전당대회 등의 정치관련 프로그램들도 비슷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른 연계 공간활용에 있어서는 <그림 9>와 같이 전시 및 회의 목적의 프로그램의 공간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상업 프로그램, 예술/문화, 스포츠/레크레이션, 정치, 축제관련 프로그램 순으로 공간의 활용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1>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활용

목적별 유형	이벤트 프로그램 별	전시홀 (E)	회의홀 (C)	다목적홀 (M)	오디 토리엄(A)	기타 (로비, 부공간 등)
전시	산업전시	○	○	○		
	무역전시	○	○			
	교역전시	○		○		○
회의	포럼	○	○			
	컨퍼런스		○			
	컨그레스	○	○	○	○	
	세미나		○	○	○	
축제	실포지업		○	○		
	지역축제	○		○		
스포츠/ 레크 레이션	전통축제, 향토전	○				○
	오락, 게임쇼	○				○
	e스포츠	○				○
	운동회	○				○
	경기	○				
기업/ 상업	기업판촉(페어 등)	○				
	기업의전	○		○		
	발표대회, 설명회	○	○			○
	방송, 홍보	○				
	교육회		○	○		
	강연회		○		○	○
예술/ 문화	채용, 시험		○			
	공연, 콘서트 등	○			○	
	대회	○	○		○	
	사인회					○
	기념회		○			○
정치	작품전 등	○				○
	정치연설, 후원회		○			
	선거			○		
	전당대회 이취임식	○	○	○

<그림 9> 프로그램별 공간연계도

(2) 프로그램 사례의 활용 분석

앞에서 분석된 <표 7>의 개별 프로그램 2,487건 중에서 연계유형이 많은 대표적인 다섯개 유형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공간연계와 활용 특성에 대한 케이스스터디를 진행하였다. <표 12>에서 케이스별 공간 연계도의 상부는 공간 이용의 선택과 연계흐름을 하부는 일정에 따른 공간의 점유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1실의 전시홀과 함께 회의홀, 다목적홀, 오디토

<표 12> 유형에 따른 공간별 연계이용 유형

* E 전시홀 C 회의홀 M 다목적홀 A 오디토리엄(도형안의 숫자는 개별실을 열거한 수를 의미)

리움을 5일에 걸쳐 이용한 Case 1은 회의부문에서는 다

목적홀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일정에 따라 회의홀을 연계하거나 변경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층에 위치한 다목적홀은 총회와 분과회의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3층의 오디토리엄은 개·폐막식 및 기초회의의 용도로 이용되어 다목적홀 프로그램을 위한 부가능적인 역할을 하였다. 연계된 상호 홀들간의 동선은 상당한 이동거리가 있으나 중간지점에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Case 2는 다수의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정의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회의공간간의 공간 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ase 4와 달리 전시공간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만, 2일차에서 회의공간의 소극적 활용은 공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ase 3은 전시홀 내부에 회의공간을 조성하여 홀 외부의 독립적인 회의실 이용을 줄이고 관람객들의 관심을 전시공간으로 집중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전시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볼 수가 있으며, 홀 주변의 로비를 이용하여 개회식을 하거나 내부 회의실을 폐회식 장소로 활용하여 타 개실 공간의 활용을 가급적 줄이려 하고 있지만, 동일 공간의 복합사용으로 인한 관람객들의 동선은 혼잡해 질 우려가 있다. 회의 프로그램 중심의 사례인 Case 4는 전반부인 1, 2일차에 실별 공간의 활용이 빈번하며 주로 지역의 중규모 시설에서 Case 5와 함께 많이 보이는 유형으로서 복수의 회의홀에 다목적 홀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회의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각 분과로 나뉘어 해당 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목적홀의 활용은 개회 1일차에 개회식과 연회 장소로만 사용되었고 폐회식은 기존의 회의실을 반복하여 이용하였다. 주로 교육, 설명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적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Case 5는 전시홀 내부에 회의실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형태로 Case 3과 전시홀의 구성형식은 같지만, 내부 회의실(세미나실)은 소규모이며 인원이 많은 모임은 독립적인 홀 외부의 다목적홀을 연계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중소규모의 산업전시 프로그램 등을 개최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다섯 가지 유형의 케이스스터디를 통하여 도출된 유형별 공간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서는 전시와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전시가 메인 행사일 경우 전시홀을 중심으로 회의실을 상호 이동 및 변경하며 활용하는 특징을 보이며, 회의실의 이용횟수 및 수량도 고정적이지 않고 비반복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시가 주요 행사가 아닐 경우의 전시공간은 회의 진행을 위한 부가적인 공간으로만 활용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적 활용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회의 프로그램만 개최하는 경우는 개최 빈도는 높지

만, 2일 전후의 단기간 이용으로 제한된 소수의 회의실만을 반복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지금까지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 사례들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공간의 공간 활용 분석에 있어서 평균적인 전시홀의 분할 이용 비율은 49.5%였으나, 서울지역에 위치한 사례를 제외한 시설들의 평균은 82%를 넘고 있으며 순가동률은 평균 4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간 분할 이용률은 높은 반면 순가동률이 비교적 낮다는 것은 대형 전시 프로그램 개최보다는 중·소형 전시 프로그램 위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년 변동되는 가동수치의 변화 범위와 전시컨벤션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예비율(전시컨벤션 관계자들은 가동률 70%대를 포화상태라고 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률 대비 전시공간의 계획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신축 또는 증축되는 동 시설에서는 공간 계획적 측면에서 지역의 여건과 이용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적정 규모의 시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의공간의 경우 사례의 시설들은 최대 분할 회의공간 1실의 평균 면적으로 138㎡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개별 프로그램에 따른 평균 이용일수 및 면적은 대규모 시설일 경우 1.6일(1실 평균면적163㎡), 중규모 1.2일(108㎡) 소규모 2.0일(144㎡)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의공간의 순가동률은 중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면적 대비 순가동률과 회전률에 따른 공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타 규모에 비하여 높으며, 공간의 연계사용 분석에서는 타 공간과 연계하여 사용하지 않고 회의홀만 단일 이용하는 비율이 시설 평균 약 60%로서 프로그램을 통한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회의공간 편중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시공간 대비 회의공간의 이용 비율은 대규모 시설에서 1.8배, 중규모 시설 6.7배, 소규모 시설 7.6배의 비율로 나타나서 중·소규모 시설에서는 회의실 중심의 활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중·소도시에서 전시컨벤션에 대한 시설계획을 할 경우, 회의공간 이용자 중심의 배치계획에 보다 비중을 두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동시에 현재의 중·소규모 전시시설은 전시장의 중요한 건립 취지인 지역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지역산업기술 교류 및 기업 홍보의 장을 위한 역할이 약하다는 의미로도 판단 할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 전용기능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중·소규모 시설에서 전시를 수반한 순수 전시 프로그램 비율이 전체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비율의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결과로도 알 수 있었다.

넷째,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전시 및 회의 목적 프로그램의 공간 활용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전시목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산업 전시 프로그램이 공간 활용도가 높았고, 회의목적 프로그램 중에서는 컨그레스(Congress)가 비교적 높은 공간 활용도를 보였다. 또한 기업/상업 관련 프로그램은 여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예술/문화, 스포츠/레크레이션, 정치, 축제관련 프로그램 순으로 공간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설계획 시 활용양상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연계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별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시와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전시의 비중이 높을 때에는 전시홀을 중심으로 회의실을 상호 이동 및 변경하며 활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회의실의 이용횟수 및 개소도 비교적적이면서 비반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전시의 비중이 적을 경우 전시공간은 회의 진행을 위한 부가적인 공간으로만 활용되며, 참가자들을 위한 지원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미나, 워크숍 등의 회의계 프로그램만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설마다 개최 빈도는 높지만, 제한된 소수의 회의실만을 반복적으로 고정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운영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공간 활용 관련 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장기간 축적된 시설 운영 자료를 통하여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신재기, 전시산업론, 한울출판사, 서울, 2004
2. 윤세목, 국제회의산업론, 현학사, 서울, 2004
3. 문창현, 광주시 MICE산업 활성화방안, 광주발전연구원, 광주, 2012
4. 안경모 외, 한국의 MICE산업 발전 방안, 한국관광공사, 2008
5. 조명환 외, 이벤트·컨벤션 관리론, 형설출판사, 서울, 2002
6. 송정일, 이벤트플래닝, 백산출판사, 서울, 2002
7. 박태성, 전시컨벤션 시설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13
8. 한국관광공사, 2011 MICE 산업통계조사·연구, 서울, 2012
9. 한국관광공사, 2010 MICE 산업통계조사·연구, 서울, 2011
10. 한국관광공사, MICE 산업통계조사·연구, 서울, 2009
11. 宮木宗治, 國內イベント市場の動向と今後, 2005
12. Donald Getz,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1
13. Wilkinson, D., A guide to effective event management and marketing. Willowdale, Ontario ; The Event Management and Marketing, Institute, 1988

[논문접수 : 2013. 07. 31]

[1차 심사 : 2013. 08. 21]

[게재확정 : 2013. 09. 06]